



해리포터의 마법 이번에도 통했다

세계 영화팬들 판타지 영화에 열광

이번은 없었다. '해리포터'의 마법은 이번에도 통했다. 다섯번째 시리즈물인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은 개봉 첫주에만 15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승승장구 하고 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비롯해, '반지의 제왕' 3부작, '나니아 연대기' 등 지금까지 개봉한 판타지 영화는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 극장가의 흥행 보증 수표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최근 할리우드에서는 판타지 영화 제작붐이 일고 있다. 특히 예전과 달리 니콜 키드먼 등 스타급 배우들이 주연으로 캐스팅 되고 있는 게 특징. 또 국내 출판계에도 판타지 소설의 번역 출간이 계속되고 있다.



스타급 화려한 캐스팅으로 흥행 보증 '스타더스트' '황금 나침반' 등 대기 '셉티머스 힙' '테메레르'도 영화로

▲판타지 소설이 원작

8월에 개봉하는 '스타더스트'는 인간이 넘 수 없는 금기의 땅 '스톨랜드'에 신비의 별이 떨어지면서, 이를 둘러싼 여러 세력의 숨막히는 대결을 그린 판타지 어드벤처다. 진정한 사랑을 얻으려는 청년, 불멸의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마녀, 절대 권력을 쟁취하려는 왕자, 정체 불명의 해적이 등장하며 특히 로버트 드 니로, 미셸 파이퍼, 클레어 데인즈 등 화려한 캐스팅이 눈에 띈다. 판타지 만화 '샌드맨'의 작가로 소설 '아메리칸 갓'으로 2001년 휴고상 및 SFX상을 휩쓴 닐 게이먼의 작품이 원작이다. 12월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 '황금 나침반'은 한 소녀가 사라진 친구들을 찾아 다양한 세계를 넘나들며 기이한 캐릭터와 모험을 펼치는 판타지물이다. 니콜 키드먼을 비롯한 '007' 시리즈의 주인공 공 내니얼 크레이그와 에바 그린 등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워너브러더스는 '해리포터'의 뒤를 이을 시리즈 작품으로 판타지 소설 '셉티머스 힙'의 권리를 사들였다. '셉티머스 힙'은 앤지 세이지가 쓴 7권짜리 판타지물로 태어난 날 서로 뒤바뀐 두 아기의 이야기를 다룬다. 위대한 마법사가 될 운명의 소년과 공주인 소녀를 중심으로 마법과 판타지 세계가 펼쳐지며 곧 번역 출간된다. '반지의 제왕' '킹콩'의 피터 잭슨 감독은 용(드래곤)이 주인공



'스타더스트'



'황금 나침반'

으로 등장하는 판타지 소설 '테메레르'(전6권)의 영화화를 선언했다.

19세기 영국군과 나폴레옹군 사이의 전쟁을 배경으로 두 나라의 전력의 일부를 담당할 용들 사이의 전투를 그린 '테메레르'는 미국 작가 나우미 노빅의 소설로 최근 1권 '왕의 용'이 번역 출간됐다.

▲속편 제작도 활발

소설을 원작으로 하지 않은 '오리지널 작품'도 속속 제작중이다. 게르만 민족의 영웅 서사시를 모티브로 삼아 인어가 사는 신비한 세계를 그려낸 안젤리나 졸리 주연의 '베어울프'는 11월 개봉 예정이며, 자신이 마지막 달의 공주임을 깨달은 고아 소녀의 모험극 '달의 공주' 역시 올해 개봉된다. 속편 영화 제작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니아 연대기'의 두번째 편인 '나니아 연대기-캐스피안 왕자'는 전편 출연진이 그대로 출연하는 가운데 2008년 여름을 목표로 뉴질랜드에서 촬영중이며 3편인 '나니아 연대기-동녘호의 모험'은 2009년에 개봉한다. '나니아 연대기'는 9천만부 이상 판매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다. 그밖에 '해리포터 시리즈'는 2008년과 2009년 개봉을 목표로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도들'을 제작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07멕시코 영화제 25일부터 광주극장서



'사이드 이펙트'

100년 역사 시네마 천국으로

광주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멕시코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시네마테크 광주 영화로 세상보기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멕시코 영화를 소개하는 '2007 멕시코 영화제'를 25일부터 30일까지 광주극장에서 개최한다. ▲파란 방=프랑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 안토니오와 안드레이는 둘 다 결혼 후 다시 만나서야 이성적인 관심을 갖게 된다. 욕망을 허덕이며 서로를 탐닉하는 그들의 관계를 증언하는 것은 호텔 '파란방' 뿐이다. ▲리얼 타임=영화 속에서 흐르는 시간이 실제 시간과 일치하는 86분간으로 원 테이크로 촬영한 실험적인 영화. 무장 트럭을 탈러던 강도 일당 내부와 그 주변을 흐르는 어두운 공기와 배신, 음모를 그리고 있다. ▲마법사=마술가 타데오는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음을 알고 여생이 끝나기 전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싶어한다. 매일 사람들을 찾아다니던 그는 사랑했던 라렐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과달라하라 영화제 작품상 수상작. ▲핑크 펀치=권투계의 유망주 모랄레스는 어느날 영화관을 찾았다 건달 헤르만 코로나가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을 목격한다. 그날 이후 두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유대관계가 형성된다. 과달라하라 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작. ▲세븐 데이즈=몬테레이에 사는 클라우디오 카발레로는 유명 음악공연의 기회자가 되고 싶은 꿈을 꾸는 젊은이. U2 같은 유명 록밴드를 멕시코로 초청해 대형 공연을 여는 게 꿈이지만 세상은 녹록치 않다. ▲사이드 이펙트=사춘기를 함께 보낸 4명의 친구들이 12년 후 다시 모여 당시의 추억과 우정을 되새기는 영화. 30대들이 마주한 미래의 불안 등을 신선한 비주류와 아름다운 음악으로 표현해낸 작품이다. 문의 062-224-5858. cane.naver.com/cinema.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영웅 특급액션

주목! 이영화 '다이하드 4.0'



'다이하드'의 존 맥클라인 형사가 12년만에 돌아왔다. 전편과 마찬가지로 부루스 윌리스가 주연을 맡았으며 1편의 초고속 빌딩, 2편의 공황, 3편의 뉴욕 지하철에 이어 이번에는 워싱턴 DC를 무대로 실력을 발휘한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전야. 베테랑 형사 존 맥클라인은 컴퓨터 해킹 용의자 매튜를 워싱턴 FBI 본부까지 호송하라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매튜의 집을 찾은 맥클라인은 갑자기 들이닥친 테러리스트에게 습격을 받아 간신히 목숨을 건진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어느날 교통, 통신 등을 관할하는 미 정부의 전산망이 마비되고 전국은 혼란으로 빠져든다. 맥클라인은 매튜와 함께 사이버 테러리스트를 추적하는데... 전편보다 한층 치열한 액션을 보여준다는 평을 받았다. (12세 관람가)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다이하드 4.0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상무), 하이, 엔터
12년만에 제작된 4번째 시리즈로 부루스 윌리스가 주연을 맡았다. 12세 관람가.	
삼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삼 쌍둥이의 비극적 운명을 다룬 공포물. 15세 관람가.	
뉴욕에서 온 남자 파리에서 온 여자	메가박스
줄리 델피가 감독과 각본 주연을 맡은 로맨틱 코미디. 18세 관람가	
시간을 달리는 소녀	광주극장
감수성을 자극하는 시간여행. 호소다 미모루 감독의 일본 애니메이션. 전체 관람가.	
파워 레인지어 매트릭스&트레저포스	CGV 광주(첨단·상무)
어린이들에게 인기 높은 시리즈물. 전체 관람가.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상무), 하이, 엔터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다섯 번째 시리즈물로 목숨을 건 미법 대결이 펼쳐진다. 전체 관람가.	
해부학 교실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상무), 하이
의대 해부학 실습실을 배경으로 한 공포 영화로 한지민이 주연을 맡았다. 15세 관람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콜롬버스(상무)
미야자키 하이오의 애니메이션. 전체 관람가.	
택시 4	하이, 엔터
릭 벅슨이 각본과 제작을 맡은 액션영화. 12세 관람가.	
디센트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상무)
동굴탐험에 나선 6명의 여자들을 주인공으로 한 공포물. 18세 관람가.	
트랜스 포머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상무), 하이, 엔터
로봇 군단의 대결을 그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로 마이클 베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12세 관람가.	

제2회 한·동 친선 OFF ROAD 마라톤대회

출발일: 6월 22일 / 23일
 일정: 4만 5천 마라톤 대회 + 동공 문화 체험
 피크닉 데이: 6월 25일

1577-4799

주요 내용

- 1. 2007 한·동 친선 마라톤 대회
- 2. 동공 문화 체험
- 3. 피크닉 데이

참가 자격

1.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국민

2. 19세 이상 65세 이하

3. 건강상 문제가 없는 사람

참가 방법

1. 참가 신청서 작성

2. 참가비 납부

3. 참가증 수령